

2020년 7월 3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유동성 정책 지속 언급한 파월 의장의 힘

파월 의장, 온건한 통화정책 지속 Vs. 경기 회복 둔화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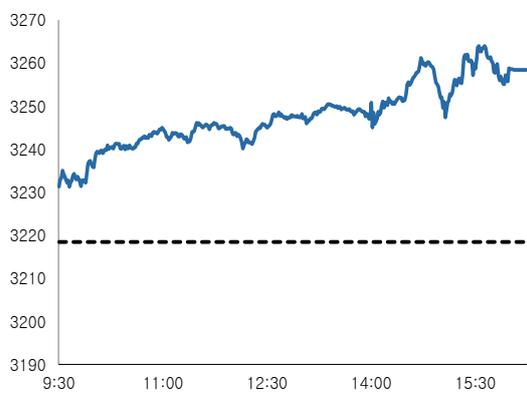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유동성 자극한 파월 의장

미 증시는 트럼프가 추가 부양책 관련 민주당과 견해차가 크다고 주장하며 불확실성을 높였으나 개별 기업들의 호재에 기반에 상승. 더불어 대형 기술주의 독점금지법 청문회 내용도 무난하게 진행된 점도 긍정적. 한편, 비둘기적 성향의 FOMC 와 파월의장도 적극적인 부양책 유지를 주장하자 상승 확대. 대체로 실적 기반해 긍정적으로 발표된 기업 위주로 강세(다우 +0.61%, 나스닥 +1.35%, S&P500 +1.24%, 러셀 2000 +2.10%)

미 증시는 ①실적 등 개별 기업 이슈 ②독점금지법 청문회 ③FOMC 로 변화.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CEO 들이 의회에 출석해 독점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진행 중. 의회는 130 년전 철도회사와 비교하며 비판. 당시 철도회사와 같이 대형 기술주가 규제 완화 및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차별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 더불어 당시 철도 산업과 같이 강력한 신기술이 경제의 재편을 촉구하지만 권력 남용을 막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며 향후 규제 강화를 시사. 페이스북은 경쟁업체인 인스타그램 인수, 애플은 앱스토어 개발자에 대한 대우. 구글은 경쟁 웹 사이트에 대한 감시. 아마존은 소매업종 차별 등이 논쟁. 청문회 영향은 크지 않았으며 향후 의회의 규제 내용에 따라 영향을 받을 듯

한편, 연준은 FOMC 를 통해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며 경기 안정기까지 저금리 유지를 발표. 더불어 파월 연준의장이 긴급대출프로그램을 경제 회복 때까지 유지할 것이며 연준은 모든 정책적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주식시장 상승폭이 확대. 더불어 파월은 경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정책 또한 중요하며 계속 유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회의 추가 부양책 필요성을 언급. 다만, 6 월 지표를 보면 경기 회복 둔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하고 고용 불안을 시사하자 상승분 일부 반납하기도 했음. 물론 장 마감 직전에는 실적 개선 기대가 높은 종목 위주로 그 폭을 확대하며 마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263.16	+0.27	홍콩	상승	24,883.14	+0.45		
KOSDAQ	808.59	+0.09	영국		6,131.46	+0.04		
DOW	26,539.57	+0.61	독일		12,822.26	-0.10		
NASDAQ	10,542.94	+1.35	프랑스		4,958.74	+0.60		
S&P 500	3,258.44	+1.24	스페인		7,206.20	-0.55		
상하이종합	3,294.55	+2.06	그리스		632.37	-0.20		
일본	22,397.11	-1.15	이탈리아		19,880.57	-0.1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퀄컴 시간 외 12% 급등 중

애플(+1.92%), 알파벳(+1.32%), 아마존(+1.11%), 페이스북(+1.38%)은 독점금지법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다. 의회는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내용을 언급했으나, 대체로 무난한 내용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기반한 것으로 추정한다. 장 마감 후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페이팔(+4.73%)은 3%, 퀄컴(+1.73%)은 실적 발표후 12% 급등 중이다. 반면, 서비스나우(+2.45%)는 5% 하락중이다.

한편, GM(-1.67%)은 비용절감, 픽업트럭 판매 호조로 예상보다 적은 손실 발표 후 상승 출발했으나 코로나 확산 등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결국 하락 전환했다. 보잉(-2.83%)은 부진한 실적 불구 양호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자 매물 출회되며 하락했다. AMD(+12.54%)와 스타벅스(+3.72%)는 양호한 실적에 기반해 급등했다. L브랜드(+35.36%)는 빅토리아 시크릿 등의 수익 개선 계획을 통해 연간 4억 달러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JP모건이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급등했다. 갭(+8.35%)도 동반 급등했다. 캐나다 온라인 쇼핑 업체인 소피파이(+6.96%)는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자 급등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3.31%	대형 가치주 ETF(IVE)	+1.12%
에너지섹터 ETF(OIH)	+2.17%	중형 가치주 ETF(IWS)	+1.86%
소매업체 ETF(XRT)	+2.84%	소형 가치주 ETF(IWN)	+2.67%
금융섹터 ETF(XLF)	+1.87%	대형 성장주 ETF(VUG)	+1.41%
기술섹터 ETF(XLK)	+1.45%	중형 성장주 ETF(IWP)	+2.1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1.56%	소형 성장주 ETF(IWO)	+1.70%
인터넷업체 ETF(FDN)	+1.82%	배당주 ETF(DVY)	+1.43%
리츠업체 ETF(XLRE)	+1.89%	신흥국 고배당 ETF(DEM)	+0.94%
주택건설업체 ETF(XHB)	+2.73%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1.12%
바이오섹터 ETF(IBB)	-1.11%	미국 국채 ETF(IEF)	+0.13%
헬스케어 ETF(XLV)	+1.05%	하이일드 ETF(JNK)	+0.60%
곡물 ETF(DBA)	+0.87%	물가연동채 ETF(TIP)	+0.23%
반도체 ETF(SMH)	+2.52%	Long/short ETF(BTAL)	-0.5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5.70	+2.13%	-0.24%	-0.61%
소재	386.94	+0.85%	-0.54%	+9.05%
산업재	614.28	+1.49%	+0.07%	+5.73%
경기소비재	1,130.21	+1.05%	-1.04%	+7.49%
필수소비재	642.86	+0.15%	+1.03%	+6.91%
헬스케어	1,244.95	+1.08%	+0.13%	+6.61%
금융	406.48	+2.02%	+0.71%	+5.45%
IT	1,884.94	+1.50%	-1.98%	+2.44%
커뮤니케이션	189.62	+0.78%	-1.38%	+5.41%
유틸리티	308.56	+0.44%	+0.19%	+7.53%
부동산	227.07	+1.89%	+4.21%	+4.9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수급 주시

MSCI 한국 지수 ETF 는 1.93%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1.61%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0.7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월 연준의장은 의회의 추가 부양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했다. 특히 경기가 회복되기 전까지 정부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며 회복 전까지는 이러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유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준 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됨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으며 이는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인다. 더 나아가 한국은행과 연준은 통화스와프 계약 기간을 6 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해 외환시장 안정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언급했듯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 부양책이 통과 되지 않으면 8 월 미국의 소비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불어 미국의 독점금지법 청문회에서 의회는 대형 기술주에 대한 규제를 시사하는 내용이 나와 향후 관련 종목들의 변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지속 여부 등에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주택지표 양호

6 월 미국의 잠정 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16.6% 급등했는데 이는 전월 발표(mom +44.3%)보다는 낮으나 예상(mom +5.2%)를 크게 상회했다. 이는 낮은 모기지 금리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미 상무부는 6 월 미국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전월(-753 억 달러) 이나 예상(-743 억 달러) 보다 적은 706 억 달러 적자로 발표했다. 수출이 125 억 달러 증가했고 수입은 79 억 달러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하락폭 확대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EIA 의 지난 주 원유재고가 1,061 만 배럴 감소했다는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경기 회복 지연과 가솔린 재고가 140 만 배럴 감소 예상과 달리 65 만 배럴 증가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달러화는 연준의 비둘기적 성향의 FOMC 에 기반해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달러 대비 강세폭이 제한된 가운데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유로화와 파운드화를 비롯해 신흥국 환율은 연준의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 언급 등에 기반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주가지수 상승 불구 하락했다. 파월 연준의장이 온건한 통화정책 지속적인 유지를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파월의 기자회견 말미에 경기 회복 둔화가 시작되었으며 고용시장 회복도 늦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자 금리 하락세는 이어졌다.

금은 FOMC 앞두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기반해 상승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36% 철근은 0.27%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1.27	+0.56	-1.50	Dollar Index	93.306	-0.42	-1.77
브렌트유	43.75	+1.23	-1.22	EUR/USD	1.1788	+0.61	+1.88
금	1,976.70	+0.65	+4.44	USD/JPY	104.98	-0.10	-2.03
은	24.321	+0.09	+5.09	GBP/USD	1.2988	+0.43	+1.99
알루미늄	1,725.00	+0.06	+2.01	USD/CHF	0.9128	-0.56	-1.81
전기동	6,474.00	-0.05	-0.19	AUD/USD	0.7185	+0.38	+0.63
아연	2,297.00	+2.25	+3.80	USD/CAD	1.3341	-0.29	-0.57
옥수수	326.25	-1.14	-2.54	USD/BRL	5.1787	+0.41	+1.19
밀	532.75	+1.77	-0.33	USD/CNH	6.9976	-0.11	-0.28
대두	885.25	-0.25	-1.14	USD/KRW	1193.10	-0.32	-0.18
커피	111.60	+1.78	+3.00	USD/KRW NDF1M	1190.78	-0.68	-0.5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576	-0.33	-2.14	스페인	0.344	-0.80	+1.30
한국	1.305	-2.00	-3.70	포르투갈	0.352	-1.10	+1.10
일본	0.023	0.00	+0.40	그리스	1.066	-0.30	-5.30
독일	-0.498	+1.00	-0.80	이탈리아	0.991	-1.50	-4.4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